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20 ~ 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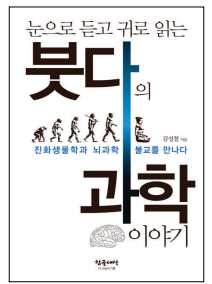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인생수업 | 법륜 | 휴 | 6 | 사람이 온대(해와 치유의 힐링 그림편지) | 이영철 | 해조음 |
| 2 | 수트라(여시아독) | 법일 | 김영사 | 7 | 행복한 사문인 전하는 시간의 선물 | 성원 | 담앤북스 |
| 3 | 나를 찾아가는 명상 여행 | 정어 | 맑은샘터 | 8 |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 제희, 신행수, 김호, 윤성익 | 모라나무 |
| 4 | 맑은 마음 밝은 마음 | 김재웅 | 웅화 | 9 | 법성계 강해 | 김성백 | 운주사 |
| 5 |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는가 | 남태근, 송천문 | 마하연 | 10 | 아함경 | 학담 | 큰수레 |



과학에서 불교, 불교에서 과학을...

눈으로 듣고 귀로 읽는 붓다의 과학이야기

김성철 지음 | 참글세상 펴냄 | 1만5천원



“부처님 가르침의 참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현대 학문은 무엇일까? 철학, 종교학, 물리학, 사회학, 심리학 등 많은 학문들이 있지만 불교를 바르고 정확하게 알고자 할 때 가장 유용한 학문은 생물학이다. 그 중에서도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원리를 갈파한 찰스 다윈(1809~1882)의 진화생물학이다.”

진화생물학과 뇌과학이 불교와 만났다. 책은 다윈의 진화론에서 발견한 사성체, 과학이 발견한 모든 생명체의 생로병사의 본질 등 과학과 불교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연결하여 과학 속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발견하고, 불교 속에서 과학을 발견하는 교양과학서다.

최근 들어 생명체의 형태는 물론이고 인간의 행동이나 심리까지 진화생물학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유전공학과 뇌과학의 눈부신 연구 성과들이 이런 시도가 합당하는 점을 뒷받침한다. 앞으로 언젠가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많은 내용들이 진화생물학과 뇌과학의 언어로 대체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그로인해 대부분의 종교 역시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과학의 연구 성과를 수용하면서 기존의 세계관을 수정하든지, 과학과 대립하면서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든지,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불교만은 예외라고 말한다. ‘불교’는 ‘계시의 종교’가 아니라 ‘깨달음의 종교’이며, 외부에서 주어진 ‘도그마’가 아니라 부처님에 의해 ‘발견된 진리’로 현대과학과 방법론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불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불교학’ 역시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학(神學)’이 아니라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각학(覺學)’이기 때문이다.

종교와 과학은 서로 대립 또는 대척의 느낌이 강하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과학을 도구로 접근하고 연구할 수 있는 종교가 불교일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심리·만상과 중생의 생로병사에 대한 심오한 사유와 통찰의 결과물이며, 그런 만큼 과학의 발달을 배경으로 오히려 더욱 설득력 있게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다. 그것을 뒷받침하듯이, 과학이 발달할수록 다른 종교는 힘을 잃어가는 데 비해 불교의 진리들은 오히려 과학을 통해 하나하나 증명되는 과정에 있기도



도, 집, 열, 도의 네 가지 진리, 즉 사성제를 발견하신 부처님(왼쪽)과, 이 가운데 교와 집의 진리를 입증한 찰스 다윈

불교 이해에 진화생물학 유용해
종교 미래, 과학 수용여부에 달려
불교는 예외 과학과 방법론 같아

부처님의 주요한 가르침 증명하는
생물학 뇌과학 관련 이야기 47
세 분야 통섭한 혁신적 과학교양서

하다. 책은 부처님의 주요한 가르침을 증명하는 과학, 그 중에서도 진화생물학과 그리고 뇌과학과 관련된 특정 주제 가운데서 쉽지만 깊은 깨달음을 주는 과학적인 이야기 47가지를 모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쉽게 접근하는 동시에 과학적 호기심까지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종교서적인 동시에 교양 과학서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을 비롯해 동물의 형태는 왜 좌우가 대칭인가?” “왜 이목구비가 얼굴에 몰려 있는가?” 이런 질문에 곧바로 대답할 수 있을까? 책은 이처럼 ‘우리 몸과 마음의 비밀’에 대해 직설적인 질문을 던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빌려 명쾌하고 심오한 답을 제시한다.

불교에서는 현대생물학과 마찬가지로 인간과 짐승을 구분하지 않는다. 인간이나 짐승 모두 생로병사한다. 또 뇌과학에서는 자아(또는 영혼)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불교의 무아설(無我說)에 접근하고 있다. 행동의 주체로서의 자아가 있는 착각은 뇌의 전두엽에서 형성되고, 몸으로서의 내가 있다는 착각은 두정엽의 뼈기전소엽에서 유래한다. 이렇게 자아는 뇌에 형성된 신경회로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몸과 마음, 인간과 자연의 본질에 대해 과학적으로 천착할수록 불교를 만나게 되고, 거꾸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깊이 이해할수록 현대의 과학 이론들이 떠오른다. 저자는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는 과학의 언어로 불교를 풀어낼 수 있어야 하고, 현대 과학이 인간의 탐욕과 분노를 실현하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생명과 세계에 대한 불교의 통찰이 길잡이가 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한다.

“미래에 언젠가 온 우주를 포괄하는 보편종교가 생긴다면 그런 종교에서 기대할 만한 특징들을 갖추고 있는 종교가 바로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인격신 따위를 믿는 종교의 수준을 넘어서며 어떤 도그마도 고집하지 않고 모든 신학 세계를 배격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자연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모두 포괄합니다. 또 자연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모두를 의미 있는 하나의 통일체로 체험하면서, 그런 체험에서 일어나는 종교적 감(感)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와 “인식의 한계”를 밝힌 ‘상대성 이론’으로 인류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만년의 회상>이라는 수상록에서 밝힌 불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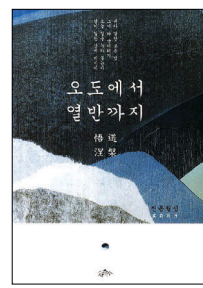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연기의 법칙을 중심으로 한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의 법칙은 정신과 물질, 삶과 죽음, 생명과 세계, 선과 악, 즐거움과 괴로움 등 우리가 알고, 짓고, 겪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유일무이한 법칙으로, 물리학의 ‘통일장 이론’에 비교된다. 책은 불교학과 진화생물학과 뇌과학이라는 지극히 전문적인 세 분야를 통섭하여 풀어낸 혁신적인 과학교양서다.

박재완 기자 wanhollo@hyunbul.com

계송은 깨침의 순간 터지는 호흡과 노래

오도에서 열반까지

진용왕성 지음 | 시유수 펴냄 | 2만원



“마음이 일어나니 온갖 법이 일어나고 / 마음이 멸하니 감실과 무덤이 다르지 않네 / 삼계가 오직 마음일 뿐, 만 가지 현상이 오로지 식일 뿐이네 / 마음 밖에 아무 것도 없는 데 어찌 따로 구하겠는가” 원효대사의 오도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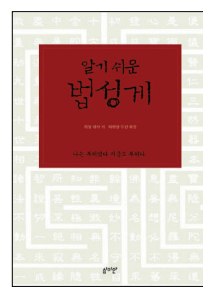
책은 오도송을 문자로 처음 남겼다고 할 수 있는 신라시대 원효대사에서부터 고려, 조선을 거쳐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선어선불의 스님이 남긴 오도와 열반의 기록인 오도송과 열반송을 소개한다.

오도송과 열반송은 불교의 가르침을 짧은 시구로 드러낸 계송(偈頌)이다. ‘계’와 ‘송’은 같은 의미인데, 계는 산스크리트 가타(gatha)의 음을 따서 만든 말이고, 송은 가타를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그중 자신의 깨달음을 노래한 것이 오도송(悟道頌)이며, 임종(臨終) 전에 남겨 놓고 가는 노래가 열반송(涅槃頌)이다. 불교수행의 궁극인 오도와 열반에 대해 궁극해 하는 불자 또는 마음공부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을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법성계> 제대로 알면 ‘깨달음’ 가까워져

알기 쉬운 법성계

의상대사 지음 | 허원당 무진 해설 | 심미안 펴냄 | 7천원



광주불교방송 법사회 회장 이자 라한산 정토선원 선원장 허원당 무진 스님이 의상대사의 계송인 ‘법성계(法性偈)’를 해설한 <법성계>를 출간했다.

<법성계>는 신라의 의상대사가 <화엄경>의 내용을 압축해서 쓴 계송이다. 일곱 글자로 만들어진 구절, 30개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모두 210개의 글자로 되어 있다. <법성계>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법의 성품을 나타내는 계송집이다. 다시 말하면 ‘깨달음은 무엇이고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깨달음을 얻으려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계송집이다.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며 수행하는 이유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한 마디로 법성(法性)을 깨닫는 것

저자에 의하면 오도송은 깨달은 상태에서 저절로 흘러나온 것이지 누구에게 보여주교자 짓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깨침이 드러나는 자연스런 노래이다. 또 열반송은 선사들의 평생 치열한 수행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을 농축하여 세속 사람들에게 전하는 심심미묘법이다. 따라서 오도송과 열반송은 후학들로 하여금 자신의 공부를 진실하게 돌아보게 하는 사자후라할 수 있다.

선가에서는 선시에 대한 ‘해설’을 일 없는 것으로 여긴다. 깨달음의 깊이가 어렵듯이 스님들이 남긴 오도송과 열반송을 깊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저자는 “해는 해대로 달은 달대로 아름답습니다. 산은 산대로 높기도 낮기도 하고, 물은 물대로 깊거나 얕거나 합니다. 그 뜻을 다 헤아려 알 수는 없더라도 각자 인연과 뜻을 잘 찾아 자신의 여사야 문에 맞기면 되겠습니다.”고 당부한다.

“일생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 하늘 넘치는 죄업을 수미산을 지나친다 / 산 체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 갈래나 되는지라 / 둥근 수레바퀴 뒤편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성철 스님의 열반송이다.

오도송과 열반송은 머리로 풀이하거나 분석하는 글이 아니다. 깨침의 순간에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호흡이고 노래이다. 저자는 불필요한 해설은 자칫 우를 범하는 사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해설 대신 그들의 행장을 실었다.

박재완 기자

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교는 법성을 깨닫는 것이 목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성계>는 중요한 계송집이다.

선암사 전통강원 강주를 지낸 무진 스님은 “경에 나오는 유명한 말을 모아 만들어진 천도재나 49재 염불문의 마지막에 법성계가 들어가 있는 것은 다른 말씀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마음의 눈을 뜨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불자들의 최고 목표인 깨달음은 무엇이고, 어떻게 깨달아야 하고, 그 경지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깨달음을 얻어 무엇을 하려는지 등을 가르쳐 주는 계송이 바로 <법성계>인 것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불자들이 <법성계>를 입으로는 잘 익혔지만 그 깊은 뜻을 제대로 알고 봉독하는 불자들은 많지 않다는 생각이 출간의 동기가 되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하게 그 뜻과 의미를 설명해주는 <법성계>는 법성계는 어떤 것인지, 법성계가 완성되기까지의 과정, 연원, 의상대사, 법성계의 구성, 해설, 전문 등 총 아홉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재완 기자

www.withbuddha.co.kr

이야기가 있는 불교 종합쇼핑몰

위드분다

다양한 불교용품과 아이디어 넘치고 실용적인 불자용품
우수한 품질과 실속있는 착한 가격, 그리고 다양한 혜택
편리한 구매와 끝까지 책임지는 안전한 배송

항상 새로운 만족을 드리는 불교전문 종합쇼핑몰

네이버와 다음에서 위드분다를 검색하세요.

위드분다만의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HANDMADE상품
국내불교작가들의 배어난 불교미술작품들을 매주 업데이트!